

석유 메이저 수익 “고유가 버블”

ExxonMobil 초당 1318달러 이익 ... Shell도 2/4분기 63억1000만달러

고유가로 세계 석유 메이저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 온 상황에서 2/4분기에도 수익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7월27일 집계됐다.

경제전문잡지 Forbes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 ExxonMobil은 3-6월 수익이 2005년 3-6월에 비해 36% 증가한 무려 104억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면서 초당 1318달러의 이익을 거둔 셈이라고 강조했다.

Royal Dutch Shell도 2006년 2/4분기 2005년에 비해 36% 증가한 63억1000만달러의 이익을 낸 것으로 발표됐다. 덕분에 Royal Dutch Shell은 유전이 집중돼있는 나이지리아의 소요와 5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집단 소송의 타격도 무난히 극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Conoco Phillips와 BP 역시 분기 수익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Forbes는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수익 급증에 대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월가에서 분석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중론은 당분간은 무난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JP 모건의 증시 전문가는 Forbes에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늘어난 3년 동안 같은 질문이 이어져 왔다”면서 “유가가 지금처럼 강세를 보이는 한 석유업계의 실적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픈하이머의 석유시장 전문가도 “지난 3년간 석유기업들의 수익이 기록을 경신해왔다”면서 유가 전망치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석유업계 경영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배럴당 75달러대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2006년 전체로 평균 67달러 수준일 것이라면서 평균치가 2007년에는 71-72달러까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평균 유가는 56달러대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연가스보다 원유 쪽 생산 비중이 큰 에너지기업들이 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면서 “석유업계의 사업 기초여건이 지금보다 더 좋은 적이 없었으며 향후 전망도 무척 밝다”고 강조했다.

JP 모건의 한 애널리스트도 “향후 분기들에도 석유기업 실적 전망이 밝다”면서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투자를 계속 권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가 3/4분기에 72달러 수준을 오르내리다 4/4분기에는 65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BBC는 “Royal Dutch Shell의 2/4분기 수익이 시간당 약 300만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인플레이 가중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부각시키는 업살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도 BP 경영진이 정유설비 보완과 안전 강화 등에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 2006년 5% 가량 증가할 것이라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06/07/29>